

2003년 제2대학 여름 학회캠프
학회커리워크샵 자료집

30955621
30954902
30954058



지식캡슐 팔아요~!

July. 21_25 7월 넷째주

10회 제2대학 학회캠프

합트유도역학

이 책은 합트유도역학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합트유도역학의 기초 이론과 응용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예제와 연습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합트유도역학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1) 합트유도역학 소개 : 제1차 법칙

합트유도역학

합트유도역학의 응용

합트유도역학의 응용

합트유도역학의 응용 : 제2차 법칙

합트유도역학

합트유도역학의 응용

합트유도역학의 응용

Contents

합트유도역학 소개		p 2
커리큘럼소개	1. 철학	p 5
	2. 페미니즘	p 10
	3. 암시즘	
	4. 자본주의	p 16
	5. 사회주의	
	6. 언론	
	7. 교육	
	8. 미국	
	9. 민족주의	
	10. 정보사회	
	11. 입문세미나	p 21
실제세미나 사례	페미니즘 기초세미나	p 64
	연세대 공학5반 책모임	p 66

학회커리워크샵

1. 학회커리워크샵이란?

제2대학 학회커리워크샵이란, 학회 세미나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와 커리큘럼을 분석하는 자리이다. 기존의 학회워크샵에서 학회운영론을 중심 화두로 워크샵을 진행했다면, 이번 커리워크샵은 이름 그대로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하는 워크샵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획의도 및 목표

제2대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학회활동가들의 의욕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학회활동가들의 불만이 학회활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회활동가들을 위한 워크샵을 여러 차례 기획했었다. 이 자리에선서는 학회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하고, 여러 학회활동가들이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 학회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학회의 변화는 학회의 성격을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어렵게 했고, 학회의 세미나 수준 역시 하향평준화하여 많은 학회가 학회별 특색이나 체계적인 커리큘럼 없이 입문 수준의 사회과학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회들이 제2대학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풍부한 세미나 커리큘럼이었다. 이에 제2대학은 그에 대한 체계적인 재언과 커리의 발굴이 필요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학회커리워크샵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기존 학회캠프 워크샵에서 제안되었던 학회운영론보다는 세미나 방법론이나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좋은 커리를 발굴하고 새로운 주제의 커리큘럼을 제시하여 학회활동가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3. 워크샵 진행방식

워크샵은 학회 세미나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들을 분석하고, 그 주제별 특성 및 세미나 방법과 적절한 커리큘럼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제2대학이 주제를 설명하고 주제별로 적절한 세미나 방법이나 소주제를 제시한 뒤, 45회 정도 진행할 수 있는 세미나 커리큘럼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 주제로 직접 세미

나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학회활동가의 세미나 사례를 듣고, 그 세미나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보충할 만한 논점들, 세미나 노하우 등에 대해서 토론한다.

주제는 ①철학, ②페미니즘, ③맑시즘, ④자본주의, ⑤사회주의, ⑥언론, ⑦교육, ⑧미국, ⑨민족주의, ⑩정보사회, ⑪입문세미나 등으로 구성되며, 각 주제별로 전체를 훑을 수 있는 세미나 커리큘럼이나 소주제별 커리큘럼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학회캠프 진행에 있어서는 몇 개의 주제에 국한해서 발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주제는 이후 학회캠프의 진행이나 자료집을 참고하도록 한다.

(1) 커리큘럼 소개 : 제2대학의 발제

- 주제 설명
- 주제별 특성 및 세미나 방법
- 제2대학이 선정한 커리큘럼 소개

(2) 실제 세미나 사례 : 학회활동가의 발제

- 학회 소개와 세미나 배경 설명
- 주제 및 세미나 교재 설명
- 실제 제기된 논점들
- 세미나 노하우
- 관련된 후속사업

(3) 토론

- 풍부한 논점 발굴
- 세미나 노하우 공유

1. 철학

○ 주제설명

철학은 태생적으로 '따지기'를 그 본질로 하는 학이다. 그리고 철학의 '따지기'는 매우 근본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당연히고 자명하게 여겨지는 것들에게 물음표를 붙이고 꼼꼼히 '따져서' 그것을 해석하고 재구성한다. 모든 은폐되고 억압되고 그리고 망각된 것들이 이 지독한 따지기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발본적 비판, 이것이 바로 철학인 것이다. 따라서 철학은 하나의 '학(學)'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유 방식이며, 생활 태도이어야 한다. 철학적 사유란 어렵고 뽀얀 것이어서 철학 전공자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그런 점에서 학회에서 철학학습을 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며, 세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90년대 학회의 철학 학습은 주로 맑스 학습 — 그것도 소비에트에서 도입된 이른바 '정통 맑스주의' — 을 위한 사전학습의 성격이 강했고 따라서 데카르트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고대 철학부터)부터 시작되어 헤겔을 경유하여 맑스에 이르기까지의 '변증법'이 관철된 철학사를 고찰하는 것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 철학사라는 것도 대개 인식론에 초점이 맞추어진 협소한 것이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왕의 맑스 사상의 '위기'에다가 유행처럼 국내에 번지기 시작한 포스트 모더니즘 열풍이 결합되어 푸코나 들뢰즈 등의 프랑스 철학자들에 대한 학습 열풍이 잠시 분 적도 있었지만 2000년을 훌쩍 넘긴 현재에는 이마저 시들해지고 대부분의 학회에서는 철학학습다운 철학학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부한' 근대 인식론 중심의 철학사 학습이건, 아니면 한창 유행하는 스타급 철학자의 지적 에너지에 대한 열광이건 간에 1, 2학년이 중심인 학부 수준의 학회에는 커리큘럼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철학사를 학습하고 싶으면 철학자가 개설한 수업을 듣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며, 푸코나 들뢰즈를 본격적으로 학습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제2대학은 지난 겨울 학회캠프에서 재산권과 전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철학학습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이는 과거의 철학학습에 대한 반성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철학 학습의 가능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이번 학회캠프에서도 흙부터 헤겔까지의 사회철학을 통해 국가, 시민사회, 소유권 등의 주제와 만나게 되는 시간이 계획되어 있다. 요는 철학학습의 시선을 넓혀보자는 것이다. 어렵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현실 설명력을 갖는 것이 바로 사회철학, 정치철학, 윤리학 등의 실천철학 분야이다. 게다가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우리 주변에는 '철학적 사유'를 기다리는 수많은 테마들이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제별 특성 및 세미나 방법

세미나는 3회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2회는 사유 재산권과 전쟁이라는 테마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으로, 마지막 1회는 이외의 주제들에 대한 학회원들의 토론시간으로 구성해보았다. 아무래도 낯선 세미나, 익숙치 않은 주제들이기 때문에 학회교사들에게 각고의 노력이 요청된다. 아래 선정된 주제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익숙하게 되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준비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제시된 교재를 뿐 아니라 다양한 시사자료나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 제2대학이 선정한 커리큘럼 소개

▶ 첫 번째 시간 : 사유 재산권은 정당한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우리 주변에서는 늘 이 재산권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소리바다' 문제로 대변되는 최근의 지적 재산권 논쟁을 들 수 있다. 사유 재산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고의 권리로 옹호되지만 그것이 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 검토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 세미나에서는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사유 재산권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 될 것이다.

『재산권 사상의 흐름』(김남두 편역, 천지출판사) 중 가운데 「재산권에 관하여(로크)」, 「불평 등의 기원(루소)」, 「재산권이 안전과 평등(벤담)」, 「부르주아 재산권과 자본주의의 축적(마르크스)」, 「재산권에 관하여(밀)」, 「재산권과 주권(코헨)」, 「자유주의와 사유재산권(맥퍼슨)」, 「흙과 로크의 정치이론」(맥퍼슨, 황경식·강유원 역, 박영사)
『근대 소유권 개념의 형성 -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정태욱, 『법철학연구』 3권 1호)

▶ 두 번째 시간 : 전쟁은 정당한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전쟁' 자체가 지니는 철학적·윤리적 문제에 주목하는 일은 매우 드물기도 하거나 만족스러운 답을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이 문제는 비단 전쟁 뿐 아니라 폭력 일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정의로운 전쟁이란 존재하는가 등의 난제에 대해 일차적인 입장을 이끌어내기 어렵겠지만 주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유한다는 과정 자체가 중요할 것이다.

『사회윤리의 제문제』(레이첼스 편, 황경식 역, 서광사) 중 「비폭력주의 : 철학적 분석」(잔나 브슨)
『도덕의 답론』(이진우, 문예출판사) 중 「핵무기가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폭력과 정치』(이브미쇼, 나정원역, 인간사랑)
『폭력의 세기』(한나 아렌트, 김정환 역, 이후)
『평화운동의 동향과 평화연구의 과제』(숭실대 기독교사회연구소 주최 제1차 평화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중 「세계평화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방향」(이삼열)

▶ 세 번째 시간 : 철학적 토론 맛보기

철학적 학습의 진정한 의미는 철학학습을 통해 얻어진 '철학적' 마인드로 현실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에 있다. 앞서 제시된 사유 재산권과 전쟁과 관련된 주제를 뿐 아니라 새롭게 참신한 주제

들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낙태와 안락사, P2P 서비스, 여성 고용 할당제, 대학입학 정원 지역 할당제 등의 문제가 일례일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개인의 근거없는 입장만이 난무하는 난상토론으로 흐르기 쉽다. 따라서 몇 가지 관점을 정하고 그 관점에 입각하여 토론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소개된 바루흐브로디의 책은 형사상 정의제도, 부의 분배 문제,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문제, 자율성과 간섭주의의 문제 등에 대한 상이한 입장에서의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무론, 공리주의 등 기본적인 윤리학적 입장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곁들여져 있으므로 이 책을 참고삼아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수업을 위한 응용윤리학』(바루흐브로디, 황경식 역, 철학과현실사) 중 3장~14장

2. 페미니즘

○ 주제 설명

페미니즘은 학회에서 다루기 어려워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페미니즘은 어렵다'에서부터 '페미니즘 세미나를 누가 준비할 수 있을까', '페미니즘 세미나는 골치 아프다'에 이르기까지, 세미나를 기피하는 이유도 정말 다양하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급진적인 사상이며, 성차별적 지배와 억압 구조를 철폐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여성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진짜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 페미니즘은 흔히 생각하듯이 여성의 이익만을 위한 운동은 아니며, 또한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것에 반비례하여 남성의 지위를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다. '남성다움'으로 길들여져 온 남성들이 어떠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남성문화'가 어떻게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가부장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물론 여성이지만, 남성 역시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여성억압에 대한 관점을 획득함과 동시에 좀더 예민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에 그냥 지나쳤던 가부장적 문화 하나하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바꾸어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젠더에 근거한 차별 없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 주제별 특성 및 세미나 방법

페미니즘 세미나는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다면 페미니즘 세미나는 재미있고 풍부한 토론이 오가는 성공적인 세미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회교사들은 페미니즘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예 페미니즘을 모르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겁 없이 페미니즘 세미나에 참가한다. 이들은 때로는 세미나를 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완고하게 세미나의 흐름을 끌어놓기도 한다. 사실 이런 학회원들 때문에 페미니즘 세미나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구성원 때문에 페미니즘 세미나를 피한다면 그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학회에 이런 구성원이 있다면 심지어 혼을 내도 좋다. 학회 세미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모두 진보적인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을 '배려'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학습할 기회와 하고 싶은 말까지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또다른 형태의 억압이 될 수 있다. 우리 학회에 학회의 여성배제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분위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학회원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 그리고 비록 내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같이 공부하자고 먼저 이야기해보자.

물론 처음부터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페미니스트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겁내지 말고 여러 사례들을 꼼꼼히 분석해보자.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건에 페미니스트들이 분노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학회에서 토론해보자.

사실 페미니즘 세미나는 페미니스트인 학회교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논점이 잘못되거나 오히려 반여성적인 결론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페미니스트 행사나 강연회 등에 참가해서 직접 페미니스트를 만나보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다. 학습뿐만 아니라 경험과 실천으로 페미니즘 세미나를 마무리지어보자. 그리고 각자가 여성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감수성을 일깨우고 자기 안의 가부장성을 깨부수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 제2대학이 선정한 커리큘럼 소개

▶ 처음 느끼는 페미니즘

페미니즘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상적인 여성의 억압과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문물이를 위한 책이다. 부담 없고 쉬운 책들이므로 새내기들과 함께 읽어보자.

『이갈리아의 딸들』, 게르트 브란텐베르그, 황금가지, 1996

『여성 명령정부에 대한 공상』, 글로리아 스타이넘, 현실문화연구, 1995

『행복한 페미니즘』, 벨 후스, 백년글사랑, 2002

『미래에서 온 편지』, 현경, 열림원, 2001

『페미니즘』, 제인 프리드먼, 이후, 2002

▶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페미니즘의 단연 최대의 화두는 섹슈얼리티이다. 여성의 몸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래의 책들을 통해서 살펴보자. 소개하는 교재의 대부분은 페미니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주제별로 글을 서술하고 있어서, '이런 것이 여성 문제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입문서이다.

『여성 몸 성』, 장운필화, 또하나의문화, 1999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동녘, 1999

『새 여성학 강의』, 한국여성연구소, 동녘, 1999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김이은실, 또하나의문화, 2001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케티 콘보이 편, 한울, 2001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캐럴 타브리스, 또하나의문화, 1999

▶ 가부장제와 여성의 몸

1) 가부장제도

여성은 단지 그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이러한 성차별과 여성 억압의 기저에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통제와 남성들 사이의 연대라는 가부장제적인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다. 가부장제 이데올

로기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여성 억압의 원인을 밝히고 성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우에노 치즈코, 녹두, 1994

『가부장제 이론』, 실비아 윌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2) 모성신화에 둘러싸인 여성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그 자체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잠재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기대받는다. 여성은 재생산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성을 지닐 것을 강요받으며, 이는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 노동력의 통제와 더불어 여성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우는 기제로 작용한다. 모성은 자연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모성을 즐겁게 받아들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 재생산에 관한 문제는 항상 페미니스트들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모성의 담론과 현실』, 심영희 편, 나남, 1999

『어머니의 신화』, 세리 엘 서러, 끼치, 1995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아드리엔느 리치, 평민사, 1995

『어머니라는 이데올로기』, 조성숙, 한울, 2002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김이은실, 또하나의문화, 2001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배리 쏘온, 한울, 2003

3) 결혼과 억눌린 여성의 욕망

여성은 낭만화된 결혼의 환상과 실제 결혼생활에서의 괴리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여성의 욕망은 항상 표백되어 버리고, 여성의 불만 역시 '가정은 사적 영역'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치여 공식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은 낯설고 조심스런 작업이다.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캐럴 페이트만, 이후, 2001

『아내 : 순종 혹은 반항의 역사』, 매릴린 알틀, 시공사, 2003

『아주 작은 차이』, 알리스 슈비르처, 이프, 2001

『또 하나의 문화 :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 또하나의문화 동인, 또하나의문화, 1996

『또 하나의 문화 : 새로 쓰는 성 이야기』, 또하나의문화 동인, 또하나의문화, 1991

『또 하나의 문화 :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 또하나의문화 동인, 또하나의문화, 1991

▶ 자본과 여성의 몸

1)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여성의 몸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교환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중문화에서 보여지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몸을 둘러싼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장이다. 여성의 몸은 어떻게 여성성의 물질적 토대로 작용하는지, 특정 문화와 사회관계 속에서 여성의 몸은 어떻게 정치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케티 콘보이 편, 한울, 2001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동녘, 1999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김이은실, 또하나의문화, 2001

2) 성매매

성매매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입 밖에 내지 않는 주제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몇 년 전의 공창제 논의와 청소년 성매매의 증가 등은 성매매를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다. 우리가 성매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는 무엇인지, 성매매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학습해보자.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동년, 1999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캐슬린 배리, 삼인, 2002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전화연합 편, 한울, 1999

『웅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막달레나의집 편, 삼인, 2002

3)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현대 여성들의 영원한 과제이다. 미디어에서는 날씬하다 못해 마르기까지 한 여성들의 몸이 찬미되고, 다이어트 식품과 다이어트 제품의 광고는 끊임 줄을 모른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러한 몸무게와 외모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내면화하여 더욱 더 날씬해지고자 건강까지 해치면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다이어트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피고, 현대의 '자본'이 여성의 몸'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를 고찰해보자.

『다이어트의 성정치』, 한서실아, 책세상, 2000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동년, 1999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김이은실, 또하나의문화, 2001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게』, 수전 보르도, 또하나의문화, 2003

『미돈나의 이중적 의미』, 프리가 하우그 외, 인간사랑, 1997

▶ 민족과 여성

페미니즘은 민족과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을까? 페미니즘의 민족 비판은 때로는 제1세계와 제3세계 페미니스트 사이의 분열을 낳기도 했고, 때로는 근대 국민 국가의 일원으로 편입하려는 페미니스트의 딜레마를 낳기도 했다. 근대와 함께 등장했지만 민족과는 반대로 근대의 '미운 새끼오리'일 수밖에 없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분석하고 진정한 여성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민족, 섹슈얼리티, 병리학』, 고미숙, 책세상, 2001

『내셔널리즘과 젠더』, 우에노 치즈코, 박종철출판사, 1999

『성평등의 사회학』, 이영자, 한울, 1991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캐롤린 리마자노글루, 문예출판사, 1997

『페미니즘 사상』, 로즈마리 톰, 한신문화사, 2003

3. 맑시즘

○ 주제 설명

한 때 학회에서의 학습은 맑스주의의 학습과 동일시 되었으며, 한국이건 여타의 다른 나라이건 해방운동의 가장 유력한 자원 중의 하나로 아직도 맑스주의를 꼽고 있다. 맑스주의라는 지난 150년간의 이론적·실천적 전통이 단지 맑스에게로 수렴될 수는 없겠지만, 그 전체적 열개는 분명히 맑스에 의해 제안된 것이 분명하다. 어쨌든 지난 세월 동안 말 많고 탈 많은 맑스주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혹은 넘어서거나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맑스와의 대면은 피할 수가 없다.

맑스의 사상에 대해 입문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2차 문헌으로 접근하는 방식, 테마를 정해서 글들을 편집하는 방식, 원전을 직접 읽는 방식 등등)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경로들 중 '맑스의 글'을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도 솔직하게 맑스와 만나는 길은 없을 것이다. 물론 맑스가 후대에 남긴 글의 분량 자체가 만만치 않으며 1급 맑스주의 학자들도 여전히 해석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에 그 시도가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맑스의 글 중 비교적 간명하고, 핵심적인 저술들을 통해 맑스의 글을 읽는 것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의 훈련을 통해 맑스의 글에 익숙해 진다면, 맑스의 글을 우회하고서 맑스를 이해하고자 하는 길보다 훨씬 수월할 것이다.

○ 주제별 특성 및 세미나 방법

맑스의 글들 중 학회에서의 학습에 있어 가장 추천하고픈 글은 『공산주의 선언』(이하 『선언』)과 『프랑스 내전』(이하 『내전』)이다. 먼저 『선언』은 『자본』과 함께 맑스의 대표 저작이다. 『선언』이 맑스의 대표 저작 중의 하나로 선정된 이유는 맑스가 『선언』에 대해 가졌던 애착 때문이기도 하고, 『선언』이 19세기에서 현재까지 사회주의 운동에서 가졌던 의미가 꽤 특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선언』을 통해 맑스주의의 핵심 명제들에 대해 풍부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속에서 끊임없이 현재적 의미들을 재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내전』은 맑스가 남긴 고급 정치논술 중의 하나로서 파리코뎀이라는 당대의 역사 한 가운데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실천적 문제에 대한 맑스의 고민이 응축된 저작이다. 우리는 『내전』을 통해 '사적 소유의 폐지'와 함께 맑스주의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역사적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미나의 방식으로 『선언』 및 『내전』의 주요 부분을 함께 읽고 토론해 보는 '강독식'의 세미나를 추천한다. 맑스의 원전의 경우(다른 고전들과 마찬가지로) 학회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발제-토론형'의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발제자들과 참가자들이 교재에 대한 충분한 선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독식'으로 진행되는 실제 세미나는 발제를 따로 할 필요는 없으며, 무엇보다도 『선언』 및 『내전』을 차근차근 이해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선언』에 대한 가장 자세한 교안은 「칼 마르크스 이론, 철학, 정치」(『제2대학 학회학술 커리큘럼 자료

집 5판)을 참고하라. 여기에 덧붙여 세미나 간사는 「코뮤니즘 선언 읽기」(『제2대학 학회학술 커리큘럼 자료집 3판』)으로 「선언」의 개요 및 쟁점들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제시된 보조교재의 경우 여력이 된다면 세미나 교재로 선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미나 간사만 숙지하면 될 것이다. 「내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교안으로 박종철 출판사 에센스 판에 함께 실린 최갑수 교수의 해제를 참고하면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다.

○ 제2대학이 선정한 커리큘럼 소개

본격적인 강독 세미나 전에 「선언」과 「내전」을 좀더 풍부하게 읽고자 한다면, 맑스의 생애와 당시의 역사적 배경, 덧붙여 19세기 초중반의 사회주의 운동 정도를 공부해 두면 된다. 맑스의 생애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마르크스 평전」(프란시스 윈, 푸른숲)이나 「칼 마르크스 그의 생애와 시대」(이샤야 벌린, 미다스북스)을, 간략히 알고 싶다면 「마르크스의 사상」(알렉스 캘리니코프, 북막스)의 제1장 정도를 읽으면 된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혁명의 시대」(에릭 홉스봄, 한길사)를, 간략히 다루고 싶다면 「서양사 강의」(배영수편저, 한울), 「서양사 개론」(민석홍, 삼영),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로까지」(노명식, 까치)중 하나를 골라서 해당 부분을 읽으면 된다. 19세기 초중반의 사회주의 운동사의 경우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서양사회주의의 역사」(린드먼, 경북대학교 출판부)의 해당 부분을, 간략히 알고 싶다면 「역사로서의 사회주의」(와다 하루키, 창작과 비평사)의 해당 부분을 읽으면 된다.

▶ 선언 1 : 선언이 탄생하기까지

김태호, 「맑스, 엥겔스, 맑스주의」, 『99년 1학기 제2대학 강좌 맑시즘과 오늘 자료집』
김태호, 「맑스, 엥겔스, 『공산주의 선언』」, 『99년 1학기 제2대학 강좌 맑시즘과 오늘 자료집』
프란시스 윈, 「마르크스 평전」, 푸른숲

▶ 선언 2 :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맑스·엥겔스, 김태호(역), 「I.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 선언』, 박종철 출판사
배영수(편저), 「서양사 강의」, 한울출판사/민석홍, 「서양사 개론」, 삼영
나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및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절

▶ 선언 3 : 맑스주의란 무엇인가

맑스·엥겔스, 김태호(역), 「II.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 『1872년 독일어판 서문』, 『공산주의 선언』, 박종철 출판사

▶ 선언 4 : 19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

맑스·엥겔스, 김태호(역), 「III.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헌」, 「IV. 각각의 반정부 당들에 대한 공산주의자

들의 입장」, 『1888년 영어판 서문』, 『공산주의 선언』, 박종철 출판사
린드먼, 「2장 최초의 사회주의자들, 1800-1848」, 『서양사회주의의 역사』, 경북대학교 출판부

▶ 내전 1 : 프랑스 내전이란

엥겔스, 「칼 맑스의 (프랑스 내전) 독일어 제3판 서설」, 『프랑스 내전』, 박종철 출판사
노명식, 「파리로」,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로까지』, 까치출판사

▶ 내전 2 : 제1인터내셔널과 보불전쟁

맑스,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 관한 국제노동자협회 총평회의의 첫 번째 담화문」,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 관한 국제노동자협회 총평회의의 두 번째 담화문』, 『프랑스 내전』, 박종철 출판사
정운영, 「제1인터내셔널에서의 맑스의 투쟁」, 『이론 3호』

▶ 내전 3 : 프랑스 내전

맑스, 「프랑스 내전」, 『프랑스 내전』, 박종철 출판사
최갑수, 「파리 코민,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민주주의」, 『프랑스 내전』, 박종철 출판사

4. 현대 자본주의

1. 왜 현대 자본주의인가?

흔히 학회에서 1학기용 기초 세미나로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페미니즘, 현대사 등을 각각 12회 정도씩 다루곤 한다. 제2대학 역시 이러한 학습의 연장선 상에서 정치경제학 커리큘럼을 생산하기도 하였고, 정치경제학 기획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은 세상을 분석하는 하나의 틀이다. 경제기사를 장식하는, 혹은 신문칼럼에 기고되는 소위 주류경제학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주가가 폭등하고, 몇몇 CEO가 대박을 터뜨리는 세상 이면에 존재하는 다른 세상, 현대 자본주의의 폭력과 야만을 꿰뚫어 보기 위해 정치경제학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경제학 학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2대학에서는 정치경제학을 버리고(!) 현대자본주의를 택하는 과감성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실제로 학회활동가들과 정치경제학 기획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구체화되었고, 이후의 활동에서 현실화되었다.

“선배들이 정치경제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제학 읽는 얇은 책을 가져오고 우리 더러 읽으라고 했다. 처음에는 분량도 작고 내용도 쉬운 것 같았는데 읽다 보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수식도 많고 내용도 도저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도 많았다. 기계는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질문을 놓고 한 한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선배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은 강변 식으로 억지 논리로 정리하거나 슬쩍 넘겨 버리곤 했다.”(J대 98학번)

“정리하고 철폐해야 한다고, 구조조정 분쇄해야 한다고 유언물을 나눠주다가 동기하고 말싸움이 붙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치경제학적 지식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내 주위에 친구하나 설득하지 못하다니...’ 내가 배웠던 정치경제학이란 것이 무용지를 같았다.”(K대 01학번)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학습방향을 고민했던 제2대학 역시 2001년 상반기 활동에서 기존의 오류와 한계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평가 속에서 ‘현대 자본주의’로 과감하게 선회한다. 학회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설득력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최소한 문제의식일 것이다. 현재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경제특구나 세계경제 불황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주위의 친구와 시민들에게 설명해 내고 함께 토론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것이다. 이후에 자신의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할 때 스스로 더 깊고 체계적인 학습을 하면서 지식의 폭을 넓혀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2. 현대 자본주의 학습을 위한 몇 가지 제언

① 현실경제에 대한 더듬이 세우기

현실경제에 대한 더듬이를 늘상 세워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경제신문을 읽는 것이다. 요즘엔 일간지에도 경제 세션이 꼭 달려있다. 그만큼 경제기사에 대한 수요가 많고, 예민하기 때문이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경제신문을 읽는 것은 고역이다. 경제학을 업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과 주식시장의 흐름 등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경제신문을 기피하는 데에는 그 특유의 관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낯설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뿐이다. 처음엔 낯설더라도 조금씩 접하다보면 재미 있어지는 것이 경제이다.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인터넷에서 찾아도 보고 하다 보면 관심있는 분야도 생기고, 꼭 찾아읽는 고정코너도 생길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포기하기 않고 틈나는 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정치경제학 세미나와 상호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세미나에서 나왔던 고민들을 현실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지식을 자기화 할 수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시 실제 경제학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쉬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굳이 세미나 동안이 아니더라도 간간히 틈나는 대로 세미나 구성원들과 함께 토론했다 본다면 의외의 성과를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문기사들이 쌓이면 나중에 훌륭한 토론 자료가 만들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② 자료 찾기의 노하우

현실 경제를 바라보는 눈을 길렀으면, 이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보자. 나의 고민들을 이론과 어떻게 접합시킬 것인가, 정치경제학 이론들로 세상을 어떻게 설명해 낼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습에 있어서 자료찾기의 중요성이야 더 이상 강조할 것이 없지만, 정치 경제학 - 현대 자본주의 학습에서는 특히 맑스가 살았던 시대의 자본주의와 21세기 자본주의 사이의 간극을 메꾸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찾기가 특히 중요하다.

정치경제학 자료찾기에 관해서는 이미 제2대학에서 몇 번의 글을 제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적지 않도록 하겠다. 관심있는 분들은 제2대학 학회학술커리큘럼 자료집 3권에 실린 ‘정치경제학 자료찾기’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③ 세미나는 이렇게

이미 1에서 이야기하였지만, 학회에서의 정치경제학 - 현대 자본주의 세미나는 이론에 대한 습득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보다는 현실을 설득력있게 분석해 낼 수 있는 문제의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은 마음먹는다고 커지는 것도 아니며 하루 아침에 생겨나지도 않는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①과 ②에서 서술한 것들이다. 이제 어느 정도 문제의식이 생겼다는 전제 하에 세미나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우선, 세미나의 주제는 현실의 사안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질문들이 너무 추상적이어서는 곤란하고 그렇다고 너무 협소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황이라는데, 공황이 일어날까?’라는 질문보다는 ‘벤처기업의 부흥과 몰락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라던가 ‘미국에서는 신경제라고 하던데 이 신경제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토론허거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을 토론허거리로 삼은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적당한 자료찾기이다. 위에서 예를

든 신경제의 경우에는 맑스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신경제에 관한 적당한 신문 기사를 고른 후 관련된 논문이나 책을 참고하는 것이다. 신문 기사를 고르는 일 자체가 학회원들에게는 좋은 훈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그래프나 도표 등의 자료를 함께 읽고 정리해두면 좋을 것이다. 통계자료를 볼 때 사용된 지표의 정확한 개념과 단위 등에 주의한다면, 통계자료는 현실 경제를 읽는 가장 간편하고도, 세련된 무기가 될 것이다.

○ 제2대학이 선정한 커리큘럼 소개

이 커리큘럼은 제2대학 홈페이지 자료실 13번 글 '현대 자본주의 세미나_제2대학'을 2001년 학회 세미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커리큘럼이다. ①과 ②는 현대 자본주의 세미나에서 기본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③은 이슈토론으로 여기서는 신경제로 구성하였다.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 교재 : 피에르 잘레, 『자본주의란 어떻게 움직이는가?』(책세상); 김수형, 『공황론』, 『청년을 위한 정치경제학 강의』(한겨레신문사)
- 참고교재 : 캘리니코스,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중 제6장 자본주의; 김수형, 『공산당선언』과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 『뉴스플러스』 1998.6.18; 김수형, 『자본론』의 현재적 의미; 김수형, 『정치경제학원론』(한길사); 김신준, 『자본의 이해』(이론과실천)

사실 자본주의에 대한 학습은 별도의 커리가 필요할 정도로 방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자본주의란 무엇이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특히 공황론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어 나오는 논의들을 이해할 수 있다. 아예 신뢰할 만한 선택을 모시고 간단한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

- 교재 :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문화과학사)
- 참고교재 : 암스트롱 외,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동아출판사)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화·발전해 왔는지 살펴본다.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강상구의 책은 매우 쉽고 재밌으므로 책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이슈토론 ; 신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 교재 : 더그 헨우드 외, 『신경제 신화와 현실』(이후)
- 보조교재 : 마이클 만델, 『인터넷 공황』(이후)
한스 피터 마르틴 외, 『세계화의 뒷』(영림카디널)
로버트 브레너, 『불 앤 버블』 9장, 10장 (아침이슬)

5. 사회주의

○ 주제설명

과연 사회주의를 세미나 할 학회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동구권이 몰락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으며,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과거같은 이념 대립은 필요하지도 않으며 있어서도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주의를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간 역사적 궤적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을 하는 것 내지는 이미 파탄나버린 거대한 실험에 대한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는 결코 아닌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웅대한 프로젝트의 하나였던 사회주의의 이념, 역사, 현실을 통해 갈수록 야만으로 치닫는 전세계적 자본주의를 어떻게 넘어서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막연하기만 한 질문에 대한 작은 답변 하나를 도출해내는 데에 사회주의 세미나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여전히 현존하는 사회주의 체제들, 그리고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을 어떤 관점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수립의 목적도 아울러 지닌다.

○ 주제별 특성 및 세미나 방법

주제를 크게 네 가지로 잡아 보았다. 첫 번째는 사회주의 전개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두 번째는 현재까지 서유럽을 위시한 각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세 번째 주제는 현실 사회주의의 역사와 전개 그리고 몰락까지의 과정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현실 사회주의 몰락 이후의 성찰을 주제로 선정했다. 교재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사회주의와 관련하여 최근에 선보인 자료의 양이 극히 적다. 그러다보니 교재 가운데 상당 수가 절판되었거나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것들이라는 안타까움이 있다.

자료를 충실히 읽는다면 이해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지만,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새내기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고학번 세미나나 학회 교사 세미나에서 먼저 학습을 해본 연후에 새내기와 함께 풀이할 수 있을만한 주제를 한정지어 간명하게 새내기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맑스에 대한 풍부한 사전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공산주의당 선언』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세미나가 가능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역사적 설명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근대 유럽의 역사(특히 19세기와 그 이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분담하여 내용이 충실한 연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제2대학이 선정한 커리큘럼 소개

▶ 첫 번째 세미나 : 사회주의의 사적 전개

사회주의라는 사상과 운동을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사회주의라는 사상과 운동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함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둘러싸고 벌어진 수다한 논쟁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첫번째 세미나'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과연 한 차례의 세미나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상당한 의문이다. 여유가 된다면 여러 차례로 나누어 충실한 학습을 진행할 것을 권하고 싶다.

『역사로서의 사회주의』(와다 하루키, 창작과 비평사)

『서양 사회주의의 역사』(린드만, 경북대학교 출판부)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코뮌까지』(노명식, 까치)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유럽 정치사』(A. 로젠베르크, 역사비평사)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역사』, 『이론』 3호, 1992년 겨울 중 『제1인터내셔널에서 마르크스의 투쟁』(정운영), 『제2인터내셔널 시기의 마르크스주의』(강신준), 『제3인터내셔널 운동과 마르크스주의』(김세균)

『세계사회주의 운동사 1,2』(W.Z. 포스터, 편집부 역, 동녘)

▶ 두 번째 세미나 : 사회민주주의의 기원, 전개 그리고 한계

'좌파'의 또다른 큰 축을 형성하는 사회민주주의, 오늘날에도 서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점검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유사한 현실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전혀 상이한 정치적 결론을 제출한다. 오늘날 독일, 프랑스, 영국 등지의 사회민주주의 집권당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진중한 학습은 꼭 필요하다.

『사회민주주의 : 논리, 전개, 전망』(고세훈), 『사회비평』, 1992년 제8호

『세계진보정당연구』 중 『영국노동당의 역사적 변천과정』(청년회의), 『독일 사회민주당의 변화와 교훈』(청년회의)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60년: 가능성과 한계』(신광영), 『사상』, 1994년 봄호

『평등론』(박호성, 창작과비평사) 중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본질』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이론과 현실』(박호성 편역, 창립)

『사회민주주의 연구 I』(이성형 편역, 새물결)

『서유럽 사회주의의 역사』(L. 버셀, 갈무리)

『영국 노동당사: 한 노동운동의 정치화 이야기』(고세훈, 나남)

▶ 세 번째 세미나 : 현실사회주의의 역사, 전개, 멸명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분분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다.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근거없는 폐배적 평가도 금물이지만, 맹목적인 찬양과 동경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소련을 비롯한 지금은 사라진 현실 사회주의의 역사적 진행과정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사회주의와 관련한 많은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현실 사회주의 역시 하나의 현존하던 공동체였으므로 그 생명 과정은 일차적으로 그 공동체 내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획득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적인 전개를 이해한 가운데 그 과정에서 혁명의 당사자들

이 맞닥뜨려야 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학습의 목표가 될 것이다.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안비일러, 박경옥 역, 지양사)

『반노동의 유토피아』(차문석, 박종철출판사)

『소련 소사』(헬무트 알트리히터, 창작과 비평사)

『소련경제사』(알렉 노브, 창작과 비평사)

『소련국가자본주의』(토니 클리프, 책갈피)

『새롭게 쓴 중국 현대사 - 전쟁과 사회주의의 변주곡』(오쿠무라 시토시, 소나무 출판사)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이종석, 민음사)

『러시아혁명사』(김학준, 문학과지성사)

▶ 네 번째 세미나 : 몰락 이후

현실 사회주의 이후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쪽에서는 '역사의 종말'을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외치기도 하였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제3의 길'을 들고 나와 새로운 '좌파'의 지향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몰락 이후의 세계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들에 대해 다루게 된다.

『오즈의 마법사로 가는 노란 벽돌 길-기든스의 '제3의 길' 비판』(편집부), 『읽을꺼리』 5호, 1999년

『역사의 복수』(알렉스 캘리니코프, 백의)

『몰락 이후』(로빈 블랙번 편, 김영희 외 역, 창작과비평사)

『국가, 노동, 그리고 계급투쟁』(엘렌 메익신즈 우드), 『읽을꺼리』 3호

『지구화와 국가』(레오 파니치), 『읽을꺼리』 3호

『진보정당 읽을꺼리 통권 5호』(카피레프트)

『자유주의 이후』(L. 윌러스턴, 김문구 역, 당대)

6. 언론

○ 주제설명

언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소위 '수능세대'에 있어서 매우 진부한 작업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새내기들은 일반사회 등의 과목을 통해서 언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한번쯤 들어보고(!) 대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세미나는 보통의 단위들에서(여기에서의 보통이란 언론사가 아닌 단위를 지칭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언론서들에서는 기사를 생산해내기에라도 벅차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 언론 그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기초교양 세미나의 위상으로서 『신문읽기의 혁명(손석춘, 1997)』의 단권 학습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손석춘 씨는 『R통신(2002)』에서 어느 운동가로부터 지금의 학생운동이 쇠락하고 있는 것은 언론! 때문이라는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한다. 언론이 보도의 객관성이라는 미명 뒤에 숨어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하는 행태를 단순히 관점의 차이라고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저 사회가 이끌어가는 대로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의 구조를 분석해보고 자신의 관점으로 기사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것이 반드시 기존의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보수언론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과 기타 진보언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언론에 대한 열광적 지지로 나타나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언론세미나 편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 제2대학이 선정한 커리큘럼 소개

▶ 첫 번째 세미나 : 언론 이해하기

첫 번째 세미나는 언론이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언론이 보이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한 총론 격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언론 세미나를 따로 여러 번 할 수 없는 단위에서는 첫 번째 세미나만으로도 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미디어의 속성, 그에 부수하여 언론이 가지는 특성, 언론의 자유를 얻어내어 왔던 한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요인들(대표적으로 대광고주로 대변되는 자본, 정치권력과의 유착, 언론사주 또는 경영진의 압력), 그리고 그 입맛에 맞추어 기사가 편집되는 언론사 시스템 등을 담은 커리큘럼을 제시하였다. 주제로서는 '한국사회의 비공식적 언론통제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신문읽기의 혁명」에 실린 신문 기사들의 비교를 통해 실제적인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부교재로 선택한 「한국언론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통해서도 한국언론의 민주화에 대한 고민들을 좀더 심도있게 키워갈 수 있을 것이며,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민주언론실천위원회 회원들이 쓴 「부끄러움을 보여드립니다」는 왜곡된 기사에 대한 기사자들의 고백을 통해 언론통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과 함께 한국현대사의 질곡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주교재

『신문읽기의 혁명-편집을 읽어야 기사가 보인다』, 손석춘, 개마고원, 1997

『한국사회의 비공식적 언론통제에 관한 연구』, 정필모, 1999

부교제

『미디어의 이해』, 마셜 맥루한, 민음사, 2002 중 1부

『한국언론과 민주주의의 위기』, 김준만, 아침, 1992

『부끄러움을 보여드립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엮음, 공간, 1992

▶ 두 번째 세미나 : 언론의 보도행태 분석하기

두 번째 세미나부터는 좀더 심화된 언론세미나로서 구체적으로 한국언론이 보인 보도행태의 의미를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였다. 80년 5월 광주로 대변되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군부정권의 통제 하에 언론이 보였던, 또는 보일 수밖에 없었던 보도행태는 말 그대로 부끄러운 기억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압적인 통제가 사라진 지금에도 한국언론은 긍정하지 못한 보도를 반복하고 있다. 2001년 '이 가문에겐 과업이냐고 준열한 꾸중을 내리던(-)' 한 언론사의 사실은 많은 노동자의 분노를 자아냈고 노동자들의 집회는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집회의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 보도되기보다는 사내 교분이 마비되었다는 상? –멘트로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언론이 지녀야 할 공적 기능을 망각한 채 이윤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거대기업으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언론은 정치의 민주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선거 과정을 가져오기도 하였고, 전쟁보도에서는 황적 저널리즘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전쟁의 포화로 희생된 사람들의 사건을 여과없이 보여주거나 전쟁의 본질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기보다는 마치 전자게임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신문가득을 우선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는 보수적인 언론일수록 등한시되며-실제로 장애인?동권투쟁에 관련된 오보는 해당 시민으로부터도 격렬한 반발을 샀다. 특히 여성주의에 대한?–물 이해로 일관하고 있는 보도행태는 상대적으로?–진보언론이라는 평가를 받는 언론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학회교사가 신문 기사를 수집하여 아래 선정된 문헌 중 하나를 주제로 삼고 세미나를 한다면 관련된 주제에 대한 보다 진척된 논의와 함께 언론을 바로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80년 5월의 민주언론』, 한국기자협회·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편, 나남출판, 1997

『총투는 어로 비틀대는 선거 : 어로과 선거의 사회학』, 김준만, 아침, 1992

『어록』 선출되지 않은 권력, . 한국사회언론연구회 엮음, 한울, 1992

『물음표가 시리진 국내언론의 전쟁 보도』, 이재진, 언론개혁 통권 4호(2001 겨울)

「기사를 통해본 언론의 여성과 변화 연구」, 허명숙, 2000

▶ 세 번째 세미나 : 언론권력의 민주화와 대안언론 고민하기

마지막으로 준비한 세미나는 제목 그대로 민주적인 언론권력의 재편성과 대안적인 언론 만들기에 대한 고민들을 논의해보는 시간이다.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확산된 계기로 '안티조선운동'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안티조선운동'은 언론인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학생들이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었다. 그러나 '안티조선운동'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으며 운동의 본질이 단지 한 언론사를 향한 것만은 아닐진대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내지 못했다. 이에 반해 '안티조선운동'을 추동하는 큰 요인이 되었던 인터넷은 그 자체가 온라인언론을 형성해내며 새롭게 그 위상을 다지고 있으며, 이에 또? [http://www.anti.chosun.co.kr](#)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언론이 오프라인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한편 진보언론으로 평가받던 '한겨레신문'이 독자들

2003년 여름 학회캠프 - 학회커리워크샵 | 22

이 주주로서 기금을 모아 상대적으로 정권과 자본과의 유착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으나, 창간 이후 10여 년을 경과하면서 내부 민주화의 문제가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급진적인 진보주의 진영에서 '한겨레는 진보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다시금 진보언론에 대한 고민들이 쏟아지게 되었다.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앞서 살펴 보았던 언론을 통제하는 요인들 외에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또하나의 요인으로 여론, 좀더 솔직하게 민중의 힘을 꼽는다. 굳이 만중권력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여론의! 결집이 언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점점 bsp 강화되고 있다. 이를 제도화해내는 방법과 함께 새로운 진보언론을 만들어내고 그 범위를 넓혀가기 위한 고민들을 스스로 풀어 내어 보자.

『조선일보 공화국』, 강준만 외, 인물과사상사, 1999

『언론수용자운동과 사회운동측면에서 고찰한 「안티조선운동」에 관한 연구』, 정정일, 2001

『다시 문제는 언론플레이이다』, 강준만, 개마고원, 1997

『언론개혁의 무기』, 손석춘, 개마고원, 1998

『인터넷신문의 저널리즘적 성격에 관한 연구』, 박인숙, 2003

『한겨레신문의 창간과정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언론민주화운동의 관점에서』, 고승우, 2002

『언론을 바로세우는 사람들』, 한겨레신문전국독자주주모임, 살림터, 1998

7. 교육

○ 주제 설명

어느 사안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학생들에게 있어 특히 교육 문제는 그저 흘러 지나쳐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쳐야 할 현실이며, 또한 교육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여 우리를 직접적으로 사회의 모순 속에 얹어매고 속박시키는 기제인 까닭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 교육이란 단순한 개인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교육부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기구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공공부문화는 실은 자본주의 형성 이후 계급타협의 산물이다. 봉건시대에는 지배계급의 교육과 피지배계급의 교육이 별도로 존재했다. 지배계급의 교육은 계층 독점적 문화양식을 전수하는 사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그들이 독점하는 학교제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반면 피지배계급의 교육은 교회나 기타 사회제도적 강제 기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후 산업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대공장의 규율에 적합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동자 계급을 위한 보통 교육기관들이 자본가계급의 주도하에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일정한 시간표에 의해 움직이는 근대적 시간관념을 체화하고, 동일한 문화적 기반과 기본적인 언어 해독력과 수리 능력을 갖춘 노동자는 당시 등장한 기계제 대공장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필요에 의해 도입된 공교육 개념이 지금처럼 정착되게 된 것은 이후 보통선거권의 요구로 이어지는 당시 부상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 사회적 요구를 지배계급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상황에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이란 결코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학교란 결코 투명한 장치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교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력 재생산의 주요한 기제이며,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지배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인 것이다.

○ 제2대학이 선정한 커리큘럼 소개

▶ 학교교육 비판

□ 주교재

이한, 『학교를 넘어서』, 민들레출판사, 1998.

□ 참고교재

에버라크 라이머/김석원 역, 『학교는 죽었다』 (한마당, 1995)

이반 일리치/김광한 역, 『탈학교사회』, 『탈학교논쟁』 (한마당, 1984)

(같은 책으로 이반 일리치/양한수 역, 『탈학교의 사회』, 『민중교육론』 (한길사, 1979))

김진경,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푸른나무)

파울로 프레이리, 『페다고자-억눌린 자를 위한 교육』 (한마당)

예비학교나 교양학교에서 새내기들이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다루지고 있는 주제일 것이다. 주교제로 소개된 『학교를 넘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비판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책의 앞부분은 학교에서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새내기들이 생생한 학교체험을 떠올리며 쉽게 읽을 수 있다. 자신들의 중고등학교 시절 경험담부터 이야기를 풀어보자. 반아이들과의 관계, 못된 교사 등등 할 말은 많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각자의 처방까지 끌어낼 수 있으면 이 세미나의 반은 성공이다. 남은 문제는 "그러면 어쩔건대?"인데, 저자의 대안이 조금은 생소하고 급진적(?)이어서 "난 이런 식의 대안에 동의하지 않아"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학교붕괴와 연결시켜 각자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과 처방을 내려 보면 좋을 것이다. 대안에 대해서는 파울로 프레이리, 『페다고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데올로기와 교육

□ 주교재

W.파이버그, J.F. 슬터스, 『학교와 사회』(풀빛, 1996)

□ 보조교재

보울즈·진티스, 『자본주의와 학교교육』(시계절) 중 6, 7, 8장

데이비드 N. 스미스, 『미국의 대학과 노동계급』(창작과비평사) 중 5, 6, 7장

폴 윌리스, 『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민맥) 중 5, 6장

김진곤 외, 『일제하 보통학교와 규율』, 『근대주체의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루이 알튀세,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이미영에서의 주장』, 숲

우리사회의 학력주의는 교육은 평등하다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낳은 결과이다. 산업화에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유일하게 자신의 신분 상승시킬 수 있는 통로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나 좋은 집안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이란 과연 평등한 것인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질까. 이런 물음들에 대한 대부분 부정적이다. 맑스주의자인 알튀세는 경찰과 군대와 같은 폭력적인 국가기관과 대비하여 학교의 교육을 자본주의 계급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라고 주장한다. 보울즈와 진티스는 미국 사회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교육을 통한 계급이동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교제로 소개된 『학교와 사회』는 교육사회학의 관점에서 학교를 보는 다양한 시각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는 개론서이다.

□ 주교재

김학한, 『천보선, 신자유주의와 한국 교육의 진로』, 한울

강내희, 『지식생산·학문전략·대학개혁』, 문화 과학사

□ 보조교재

강내희, 『지식생산의 변동과 대학의 구조조정』, 문화과학, 19호

홍은광, 『신자유주의와 학력주의를 넘어서는 대학재편을 위하여』, 진보교육연구소홈페이지

박영진, 『신자유주의적 대학 재편 비판』, 진보교육 연구소 홈페이지

이강재, 『뒤돌린 대학의 초상 역사와 변화, 그리고 개혁의 전망』, 학회평론, 16호

자본에 의해 사육되는 대학의 벽을 넘어, 『대학 모순된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학회평론, 12호

팀루크, 『유연전문화 시대의 대학의 미래』, 학회평론, 16호

『대학발전과 대학개혁과의 함수관계』, 『교육개혁세미나 자료집』, 성민련

연세대 교육동아리 엮음, 『연세 21세기 그 낯선 시간 속으로』

앞의 세미나를 따라가다 보면 논의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인 대학교육으로 옮겨갈 것이다. 대학개혁에 관한 세미나는 가장 시사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재사태를 찾아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초점은 90년대 말부터 불기 시작한 대학구조조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서부터 대학교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염두해 두어야 할 점은 대학개혁의 문제점들이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등장하게 된 것임을, 그리고 그로부터 비판의 지점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 테마 3 : 미국에서의 민중들의 저항

미국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학생운동이 활발히 일어났고, 이 시기에 학생들은 학교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저항을 펼쳤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학교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저항을 펼쳤다.

8. 미국

○ 주제 설명

80년 광주 항쟁 이후에 등장한 한국에서의 '정서적 반미운동'은 주체사상 혹은 종속이론과 같은 체계적인 이론과 융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그 이론의 한계 및 90년대 이후 한국의 이론계에서 더 이상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미국에 대한 학습의 틀거리로 기능하지 못했다. 후자에 기반한 이해 역시 그 이론의 역사적 수명이 그리 길지 못했을 뿐더러, 미국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학습은 아니었다.

한국의 학계에서도 80년대에서 90년대의 미국에 대한 연구는 반미정서를 민족통일과 연관시키는 한미관계 연구나 미국에 대한 폭로성 저널리즘적 글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질을 떠나서 양적인 측면으로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9.11테러 이후 미국에 대한 연구 저작은 일단 그 양에서부터 지난 시기를 압도하였다. 미국에 대한 저작들은 연일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더 이상 미국을 모르고서는 교양인이 될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하였다. 단지 미국이 대중적인 초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사의 초점 혹은 문제거리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학회에서의 학습에서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짧은 커리큘럼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 및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징에 대한 집단적 관심 속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어떻게 '학회'에서 가능할 수 있을지를 서술하도록 하겠다.

○ 주제별 특성 및 세미나 방법

국한을 향해 지구화되고 있는 현재의 세계체제 속에서 사실 한 국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큰 욕심은 대부분의 학회에서 건네지지 못할 것이다. 세계를 완전히 이해해 버리는 것을 약간 뒤로 미루고, 미국이라는 국가의 내부를 들여다본다고 했을 때도, 분립된(?) 여러 영역들(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선택하기가 난감하다. 즉, '미국'이라는 주제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며, 더 나아가 학회교사들에게(학회교사를 뿐만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배일에 가려져 있기에, 어디를 어떻게 손대어야 할지 모르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학회에서 자주 다루어보지 않았으며, 따라서 학회교사들이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적은 주제인 경우 '다양한 테마'들로 학회교사와 학회원들이 함께 문제의식을 키워나가는 세미나 방식이 훨씬 수월하다. 미국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인데, 세미나를 통해 '미국'을 재료로 세상을 보는 인식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 제2대학이 선정한 커리큘럼 소개

▶ 테마 1 ; 미국의 우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의 우파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유지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출현했으며, 어떠한 세계

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왜 그들이 미국 및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갖게 되었는지를 해명하지는 못한다. 이에 대한 가장 손쉬운 접근은 어려운 책도 좋지만 훌륭한 영화 한 편을 같이 보는 것으로 시작하자. 마이클 무어 감독의 '볼링 포 콜롬바인'은 미국의 총기 문화를 중심으로 미국의 우파에 대한 유쾌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보수성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이 영화를 밑천으로 삼아 이주영의 얇은 문고판 책(90p)으로 미국의 우파 및 극우파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주영의 책을 통해 우리가 잊고 지나쳤던 오를라호마 폭탄 테러 사건과 같은 극우파 민병대에 의한 '기상천외한 일'에 대한 이해며, 이들 극우파 민병대가 사실은 미국 보수주의의 원형적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책의 약점은 저자가 '우파'를 옹호하며, 민주당 정도의 '진보성(?)'조차 과격하게 대접하고 있는 서술상의 보수적 관점이다. 하지만 이 책의 약점은 마이클 무어의 책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클 무어의 책은 너무 유머러스해서 세미나 교재로는 부적당하지만, 현대의 부시정권 및 미국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입문을 하기에는 적절한 보조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마이클 무어(감독), [볼링 포 콜롬바인]
- 이주영, 「미국의 좌파와 우파」, 실림, 2003
- 마이클 무어, 김현후(역), 「멍청한 백인들」, 나무와 숲, 2002

▶ 테마 2 ; 미국의 제3세계 외교

미국의 제3세계에 대한 군사 개입은 19세기에서 냉전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외교적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CIA의 비밀공작으로 대표되는 반혁명 외교는 미국의 외교 노선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으니, 이 주제에 대해서도 좋은 영화 한편을 같이 감상하는 것을 추천하고자 한다. 영국의 유명한 좌파 감독인 켄 로치의 (칼라 송)은 그 영화의 배경으로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을 다루고 있다. 미국은 중미에 대한 일관된 패권적 태도에 의거하여 20세기 들어 시도 때도 없이 니카라과에 대한 개입을 단행하는데 (칼라송)의 배경은 1981-1991년까지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에 대한 집요한 탄압의 시대에 한정된다. 물론 이 영화에서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미국의 탄압을 포괄적으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충은 『사회주의 실험 : 쿠바와 니카라과』에서 보충하기 바란다. 그리고 니카라과의 예를 넘어서 미국의 제3세계에 대한 반혁명 외교전략의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한 포괄적 비판은 이삼성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삼성의 글을 통해 칠레 아옌대 정권에 대한 탄압에서 탈냉전 이후의 파나마 침공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켄 로치(감독), [칼라 송]
- 이범준외, 「제5장 니카라과의 사회주의 혁명과정」, 「제6장 니카라과 정치체제의 기본 구조와 대외정책」, 『사회주의 실험 : 쿠바와 니카라과』, 인간사랑, 1992
- 이삼성, 「제6장 20세기 세계의 인권과 미국」, 『세계와 미국』, 한길사, 2001

▶ 테마 3 ; 미국에서의 민중들의 저항

“왜 미국에는 좌파 정당이 없을까?”라는 물음은 소위 ‘미국 예외주의’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좌파 정당이 없다고 해서 미국의 역사에서 민중들의 투쟁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는 미국에서의 민중들의 투쟁의 역사를 조망해 보는 것을 통해 미국 사회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나의 영화를 추천한다면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라는 다큐멘터리이다. 1966년~1982년까지 활동했던 흑표범당의 일대기를 그린 이 영화는 미국의 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에 대해 잘 소개해 주고 있다. 인종/젠더/계급/교육 등 미국의 제반의 사회문제가 혁명적으로 분출된 미국의 60년대의 풍경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탄압이 어떠한지를 아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이 영화의 경우 쉽게 구할 수 없고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좋은 영화 한편을 십시일반 돈을 모아(30,000원) 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 그리고 흑표범당과 관련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지금도 양심수로 옥중에 있는 무미아 아부자말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행동하는 것도 영화에 대한 좋은 감상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http://picis.jinbo.net>)를 참고하라. 그리고 흑표범당 및 68년대 미국의 급진적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1968년의 목소리』(로널드 프레이저, 안효상(역), 박종철출판사, 2002)를 참고하라. 68혁명 및 흑인민권운동으로 주제가 좁혀졌지만 왜 미국에는 노동계급운동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는지를 알려면 마이크 데이비스의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제법 두껍기 때문에 다 읽기 벅하다면 1부만 읽어도 되며 이 책을 통해 소위 ‘뉴딜 체제’ 속에서 미국의 노동조합이 어떻게 민주당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하는지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리류리(감독),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All Power to the People)』
- 로널드 프레이저, 안효상(역), 『1968년의 목소리』, 박종철출판사, 2002
- 마이크 데이비스, 김영희·한기욱(역), 『제1부 노동계급과 미국의 정치』,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 창작과 비평사

9. 민족주의

○ 주제 소개

항상 민족주의는 민감한 문제였다. 설불리 입을 열기 어려운 민족은 좋고 나쁨을 떠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이었으며, 숙명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2002년 6월을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던, 자랑스런 태극전사들의 활약을 마음껏 볼 수 있었던 그 시절을. 붉은 악마와 거대한 태극기, 오랜만에 불러보는 애국가. 단순히 승리에 대한 열원으로만은 해석할 수 없는 6월의 열정은 민족주의적 정서를 등에 업은 채 하나의 신화가 되어 갔다. 소위 좌파학생운동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손가락에 난 상처와도 같다. 외면해도 죽지는 않지만, 왠지 불편한 간지러움을 남기는. 하기에 괜히 굶어 부스럼 만드느니 침묵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몇 가지 사건들 - 6·15 남북 공동선언이나 2002년 월드컵 등 - 은 이제 입을 열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투르게나마, 민족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주제별 특성 및 세미나 방법론

민족주의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그 이전에 민족주의는 무엇일까? 우리 나라의 민족주의는 어떠한 모습을 띠었나? 그것도 식민지를 겪은 나라에서, 더 나아가 민족주의 운동은 어떠한 것일까? 어떠한 할까? 왓 그런데 민족주의 운동이란 뭘지? 이러한 고민들의 확장으로 제2대학에서는 2002년 여름 8회 학회캠프에서 ‘민족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은 민족주의에 대해 좋다/나쁘다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기본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민족이 절대선의 위상을 획득하는 현실도 우습지만, 그렇다고 민족주의는 나쁘다,라고 결론내리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짤 때 원본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역사적 맥락에서 민족주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100개의 민족이 있으면 100개의 민족주의가 존재한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대해 선악의 잣대를 대는 것은 민족이나 민족주의를 초역사적으로, 추상적으로 고찰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추상적 고찰은 어떤 측면에서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맹신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민족주의를 고민하는 것을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지금 학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아무도 식민지 직접경험을 한 사람은 없지만, 어느 누구도 식민지 간접 경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 경험을 쏟아놓는다는 점에서 세미나 진행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 세미나 참가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민족주의적 정서들과 마주치는지, 그러한 마주침에 대한 느낌을 중심으로 토론하면 좋을 것이다.

영화 감상을 함께 하는 것도 좋다. ‘공동경비구역 JSA’나 ‘쉬리’ 같이 많은 사람이 본 영화의 경우 토론하기가 더욱 수월하다. 영화에서 민족/민족주의가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지, 그러한 상정의 담지자들은 무엇이며 누구인지에 대해 토론해 보자. 다큐멘터리 ‘애국가 게임’도 함께 볼 만하다. 우익 민족주의의 실상을 볼 수 있으며, 내용도 흥미진진하고 유머러스하다. 마지막 부분이 늘어지며 이야기의 초점이 파시즘으로 흐르긴 하지만,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준다.

○ 제2대학이 선정한 커리큘럼 소개

▶ 첫번째 세미나 : 민족/민족주의란 무엇인가

□ 주교재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임지현 (소나무, 1999)

중 1부 「운동으로서의 민족주의」

「근대의 그늘 :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 김동춘 (당대, 2000) 중 3부 「한국의 근대와 민족주의」

□ 참고교재

「제3세계의 국가와 민족 : 서구국가와 아프리카 민족주의」 D. Anthony (삼영사, 1986)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상찰」 베네딕트 앤더슨(나남, 2002)

▶ 두번째 세미나 : 민족/민족주의의 구체적 양상들 I - 서구의 민족주의

□ 주교재

에릭 홉스봄, 「1780년대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1994) 중 「20세기 후반의 민족주의」

□ 참고교재

에릭 홉스봄, 「혁명의 시대」 (한길사, 1998) 중 「민족주의」

▶ 세번째 세미나 : 민족/민족주의의 구체적 양상들 II - 한국의 민족주의

□ 주교재

「한국현대사와 민족주의」 유병용 외(집문당, 1996) 중 「1980년대 한국의 민족주의」 김동춘

「오만과 편견」 임지현, 사카이 나오키 (휴머니스트, 2003)

▶ 네번째 세미나 : 영화 속의 민족/민족주의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무한정육각면체의 비밀 등

덧붙이고 싶은 말

① 「오만과 편견」 (임지현, 사카이 나오키, 휴머니스트)는 최근에 나온 저서로서 국내에서 꾸준히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를 했던 임지현 교수와 일본인이지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카이 나오키의 대담을 엮은 책이다. 제법 두껍지만 대담 형식이기 때문에 쉽게 읽히며 무엇보다 과거의 한-일 식민지 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양국 국민들의 감정과 관련하여 깊은 성찰을 하고 있다. 또한 폭넓게 민족주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것 역시 이 책의 장점. 민족주의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② 민족주의와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민족주의와 여성'이라는 테마이다.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민족은 종종 여성으로 상징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페미니즘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지겠지만, 항상 긴장감을 잃지 않길. 조국은 흰 저고리를 입은 누이나 어머니가 아니다.

10. 정보사회

○ 주제 설명

우리 사회에서 '정보화'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모토가 말해 주는 것처럼 정보사회는 산업사회 이후에 오는 새로운 사회처럼 포장되어 있다. 정보화에 대한 보수언론과 정부의 과대한 선전은 정보화를 '새마을 운동'식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했다. 그것에 대한 성과는 PC망과 초고속인터넷 보급율의 초고속성장,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다.

정보사회에 대한 이런 일면적인 이해는 엘빈 토플러나 다니엘 벨로 대표되는 미래에 대한 기술결정론적인 낙관론이 논의에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사회가 디스토피아인지, 유토피아인지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다.

○ 주제별 특성 및 세미나 방법

디지털혁명과 정보사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며, 변화된 기술 환경, 혹은 미디어 및 문화 환경 속에서 정치적 기획과 개인의 권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이 세미나의 주제이다. 디지털혁명과 네트워크 사회의 형성원인, 지식기반사회 이데올로기, 미국식 신경제의 실체,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사회계층 구성과 존재양태의 변화, 전자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등등 이 정보사회와 관련된 주요 제반 문제들이다.

세미나의 진행은 정보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개관서를 중심으로 한 입문세미나와 쟁점별로 심화된 세미나로 나뉘어 있다. 실제 세미나에서는 소개된 다양한 커리를 중심으로 세미나의 성격에 맞게 몇 가지 책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제2대학이 선정한 커리큘럼 소개

▶ 입문세미나 - 정보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권태환, 조형제, 한상진 편, 『정보사회의 이해』(미래미디어, 1997)

정보사회학회 편, 『정보사회의 이해』(나남, 1998)

『정보사회의 이해』 (권태환, 조형제, 한상진 편, 미래미디어) 라는 책은 정보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전형적인 교과서 형식의 책이다. 11명의 필자가 절들을 나누어 서술했지만, 그 수에 비해 책의 전개는 난잡하지 않다. 서론인 "정보사회의 개관"에서 1부 "정보사회의 형성", 2부 "정보사회의 조직과 계층", 3부 "정보사회의 민주주의와 시민운동" 그리고 4부 "정보사회의 빛과 그림자"에 이르기까지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정보사회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를 담고 있는 책이다. 책의 서술이 다분히 대학 교재를 염두에 두고 있어 여러 논의와 쟁점들에 대한 아주 쉬운 개관을 해놓고 있다. 각 장별로 끝 무렵에는 요점정리와 토의과제

참고문헌 그리고 관련 홈페이지까지 소개해주고 있어 너무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 쟁점 1 - 정보사회는 자본주의의 연속인가, 단절인가?

정보화를 자본주의의 연속선 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산업화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화를 촉진하는 한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변혁하는 혁신적인 성격의 것이냐는 것이 정보사회의 가장 큰 쟁점일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진행되던 과거의 논의들은 정보화가 실물화 되면서 신경제 논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자본주의의 커리큘럼을 참고하기 바란다. 추천하는 책은 정보사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깔끔하게 정리한 웹스터의 『정보사회이론』이다.

프랭크 웹스터, 『정보사회이론』, 나남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디지털이다』, 커뮤니케이션북스

백옥인,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문화과학사

빈센트 모스코, 자넷 외스코 편, 『정보에 지배당한 사회: 정보의 정치경제학』, 민글

다니엘 벨, 『정보사회와 문화의 미래』, 디자인 하우스

허버트 아서, 『현대 자본주의와 정보 지배의 논리』, 나남

로버트 엑체스니 외, 『커뮤니케이션 기술혁명의 정치경제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쟁점 2 - 전자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사실 이 세미나의 제목은 전자민주주의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 과연 전자민주주의는 실질적인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가'가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박동진 씨는 이에 대해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 비판하면서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빠띠스파 민족해방군의 네트전이 차라리 전자민주주의의 전망을 제시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동진,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책세상

크리스토퍼 아터튼, 『텔레데모크라시』, 거듭

주디스 애들러 헬만, 『실제와 가상의 치아파스: 미술적 사실주의와 작파』, 『읽을거리』 6호

이광석, 『사이버 문화정치』, 문화과학사

에릭 리, 『노동운동과 인터넷』, 한울

해리 클리버, 『사빠띠스파』, 갈무리

▶ 쟁점 3 -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소리바다 논쟁'으로 잘 알려진 최근 가장 대중적으로 이슈가 되고 쟁점이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거의 제로의 가까운 비용으로 지식과 지적 생산물의 공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개념과의 충돌은 당분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이런 디지털시대의 비자본주의적 요소가 자본주의의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과 신념체계를 창출할 거라고 주목하기도 한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개념과 지식유통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IPIet연

대에서 발간한 『디지털은 자유다』는 카피레프트의 입장에서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입장의 근거들을 반박하는 다양한 논문들이 실려 있다.

IPIet연,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리처드 바브록, 앤디 캐머론,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 문화과학사

GNU선언문 (<http://www.kdp.org> 등 여러 곳)

□ 관련 홈페이지

정보통신연대 (<http://www.inp.or.kr>)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등의 운동을 펼쳤던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 연대이다. 이 사이트에 가보면 인터넷 노동신문을 볼 수 있으니 정보에 관련된 뜨끈뜨끈한 소식들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진보네트워크(<http://www.jinbo.net>)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들을 망라한 국내 최대의 포털 사이트이다. 각종 사회운동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참세상 뉴스, 참세상 방송국, 정보운동들을 접할 수 있다.

GNU's Not Unix (<http://www.gnu.org>)

GNU 선언문을 비롯하여 GNU 프로젝트에 대한 최근 소식, 목적과 역사, 지원하는 방법, 관련 소프트웨어, 심지어 철학적 이슈들까지 GNU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글로도 볼 수 있구.

11. 입문세미나

○ 주제 설명

현재 대학 내의 학회들은 학회별 특성이나 안정적인 커리큘럼 없이 일반적인 사회과학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쉽게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해도 교재의 선택은 항상 고민스러운 일임이 틀림없다. 입문세미나는 특성화되지 않은 지금의 학회가 평이한 수준의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분류한 것이다. 1, 2학년 중심의 학회들이 활용하기에 좋도록 될 수 있는 한 쉬운 교재들을 골랐지만, 이 세미나를 통해서 관련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에 소개한 주제들에 대한 심화세미나를 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입문세미나는 첫째, 정말로 첫 세미나에 쓰기 좋은 교재들, 즉 쉽고 기초적인 관점을 획득할 수 있어서 학회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교재들을 골랐다. 두 번째는 새내기들의 감수성을 예민하게 하기 위한 교재들로, 익숙하고 보편적이지만 진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민거리로 다가오는 일상의 억압을 다룬 책들을 선정했다. 세 번째는 그 외에 다른 세미나를 하기 전에 한번쯤 읽어보면 좋은 책들을 다뤘다. 세 번째 커리큘럼은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원하는 학회들이라면 그 중에서 선택해서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커리큘럼은 정말로 입문용 커리큘럼일 뿐이다. 따라서 학회들에서는 주제를 정하여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체계적인 세미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주제별 특성 및 세미나 방법

입문 세미나는 새내기들에게 좀더 많은 쟁점과 고민거리를 풀어놓아 줄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회교사들이 논지를 정리해서 발제하기보다는, 풍부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에 대해 새내기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문세미나는 쉽고 일상적인 것에서 논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늘 보는 신문의 어조, 누구나 가는(?) 군대, 경쟁의 가치 등에 대해서 적절한 사건을 통해서 문제제기하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고찰해보아야 한다.

하지만 요즘 많은 학회들에서는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논쟁하여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많은 토론이 오가는 세미나, 정리되지 않은 세미나를 사회과학 세미나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런 세미나를 하고 나면 뭔가 말은 많이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결론이 잘 기억나지 않고, 남는 것이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발제자는 미리 충분히 고민해서 가능한 쟁점을 생각해내고, 자신이 준비한 발제에 따라 논지를 진행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세미나에서 꼭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합의와 정리는 필수적이다.

그 방식은 상반된 두 입장을 나누어 토론하는 방법과 각각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나가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진행자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 특히 새내기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럴 경우

예비세미나를 통해서 미리 세미나를 진행해보거나 발제의 개요를 미리 작성해서 토론의 흐름에서 벗어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은 적절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몇몇 목소리 큰 사람들이 발언권을 장악하는 바람에 토론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모든 학회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제2대학이 선정한 커리큘럼 소개

▶ 세미나, 이 교재로 시작하면 어떨까?

첫 세미나에서는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는 교재가 무난할 것이다. 아래 소개하는 책들은 모두 이미 학회세미나에서 검증받은 책들로, 쉽고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다. 논점도 비교적 뚜렷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세미나를 준비하기에 편리한 교재들이다.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유시민, 푸른나무, 1996

『역사란 무엇인가』, E.H.카, 까치, 1997

『신문읽기의 혁명』, 손석춘, 개마고원, 2003

『철학 에세이』, 조성오, 동녘, 1983

▶ 감수성을 예민하게 일깨우기 - 좌파의 결벽증을 느껴보자

보통의 사람들이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지나가는 부분들에도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가진 예민한 의식은 일상적이기에 그냥 지나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감수성을 발휘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리켜 '결벽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들의 번뜩이는 날카로운 태도는 때로는 거대 담론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기도 하다. 다소 뼈뼉해 보이지만 현대 사회의 은폐된 모순을 일깨우는 이들 좌파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많다.

『당신들의 대한민국』, 박노자, 한겨레신문사, 2001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창작과비평사, 1995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하워드 진, 이후, 2002

『우리 안의 파시즘』, 임지현 외, 삼인, 2000

『B급 좌파』, 김규형, 아간비행, 2001

▶ 그 외의 입문 세미나 커리

학회 세미나에서 다루고 싶지만 세미나를 여러 번 기획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분류하기도 애매하고... 하지만 그래도 꼭 함께 세미나를 해보고 싶은 책들이 있다. 여성, 문화, 미패권주의, 생태주의 등은 보통의 사회과학 학회에서 한번은 세미나를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딱딱한 주제일 수 있다. 그럴 경우 한번에 가볍게 볼 수 있는 '입문' 세미나 커리를 추천한다. 하지만 이 커리는 각 주제에 대해서 논점이 가장 잘 정리된 책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세미나로 인해서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주제에 대한 심화된 세미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갈리아의 딸들』, 게르트 브란트베르그, 황금가지, 1996

실제 세미나 사례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조지 리처, 사유시, 2003

『전쟁 중독』, 조엘 안드레이스, 창해, 2003

『오래된 미래 - 라디크로부터 배운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녹색평론사, 1996

『전태일 평전』, 조영래, 돌베개, 2001

『아름다운 저항』, 방현석, 일하는사람들의작은책, 1999

1. 페미니즘의 기초세미나

1.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_제2대 학회페이지 (altuniv.net) 자료실 91번자료

1.1 세미나의 진행과 교재

페미니즘의 성찰과 의의를 중심적인 주제로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와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을 주교재로 삼았습니다.

주교재 전체를 보기보다는 성찰, 평등, 페미니즘의 의미, 페미니즘의 의의라는 네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몇가지지의 부교재와 함께 4회 정도의 세미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1.1.1 첫 번째 시간 :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주교재 : 캐롤 타브리스,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중 1-3장

부교재 :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성명명정부에 대한 공상』 (현실문화연구) 중 7, 9, 13장

1.1.2 두 번째 시간 :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이란 무엇인가?

주교재 : 캐롤 타브리스,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중 8장

부교재 : 이현정, 『차이의 문제와 여성운동』 (참세상 네트워크 자료실)

1.1.3 세 번째 시간 - 페미니즘의 의미와 서구 페미니즘의 역사

주교재 : 캐롤린 라마자노글루, 『페미니즘은 믿을 만한가?』,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문예출판사)

부교재 : 무영,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여성해방연대 자료실)

1.1.4 네 번째 시간 - 페미니즘의 의의와 비서구 페미니즘의 역사

주교재 : 조한혜정, 『운동의 주체에 대하여』,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또하나의 문화)

부교재 : 무영, 『여성운동의 적극적인 가능성을 위해』 (여성해방연대 자료실)

12 세미나의 의의와 평가

이 세미나는 페미니즘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문제인 남녀간의 성차를 한가지의 주제로 하고 페미니즘의 의미와 가능성을 다른 한가지의 주제로 하는 세미나였습니다. 두가지의 주제 모두 페미니즘으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매우 성실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입문이나 개괄의 성격이 지나치면 세미나의 토론이 구체적 내용없이 뜬 구름을 잡는 것처럼 관념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교재에서 놓치기 쉬운 구체적인 사례들과 일상의 경험들을 적절히 준비하여 풍성한 사례를 가진 입문세미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제2대 학술편집지 (altuniv.net) 자료실 92번자료

2.1 세미나의 진행과 교재

자치대학을 향한 실천적 학문공동체 제2대학에서 나온 학회 학술 커리큘럼자료집 3권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의 세미나였습니다.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성정치, 외모, 성매매 그리고 성폭력의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세미나로 주교재는 '섹슈얼리티 강의'입니다. 총4회 분량 세미나였습니다.

1) 여성, 젠더, 섹슈얼리티 그리고 성정치

주교재: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 1장

부교재: 제2대학 성정치 강좌 강의안 '성과 민주주의', '이성애주의와 그 불만'

2) 여성의 외모와 다이어트

주교재: 한서설이, 「섹슈얼리티 강의」 5장

부교재: 권인숙, 「외모차별이란 굳은 살」 기사 모음, 「이영자씨 사건에 관하여」

3)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 - 성매매

주교재: 원미혜, 「섹슈얼리티 강의」 6장

부교재: 원미혜, 「매매춘 합법화에 대한 논의」

4)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 - 성폭력

주교재: 「섹슈얼리티 강의」 9장, 10장

부교재: 배은경, 「성폭력을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2.2 세미나의 의의와 평가

이 세미나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이어트와 성매매 그리고 성폭력과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고민해 보는 세미나였습니다. 특히나 주교재로 선택한 책이 워낙 이런 주제와 관련하여 짝임새 있게 쓰여진 책이라 큰 어려움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이 구체적인 행동이나 고민과 연결되어야 더욱 좋은 세미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성매매나 성폭력과 같은 경우는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이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직접적인 사회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적절한 교집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주교재의 다른 부분을 읽는 것도 좋고 기지촌 현장활동을 간다거나 여성단체에서 일정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미나에서 고민하고 배운 것을 만큼이나 많은 것들을 실제의 경험과 노력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세미나의 문제의식을더욱 발전시키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세미나에서는 첫 번째 세미나를 바탕으로 하고 주교재의 9장, 10장의 내용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성적 욕망과 능동적인 섹슈얼리티를 재구성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세 공학5반 책모임

1. 만들어진 시기 : 2008년도 1학기 시작할 무렵.

2. 만들어진 동기 : 처음에는 대학사회의 과편화된 관계들을 극복하고자 책을 매개로 모임을 만들었지만 곧 책을 읽는 것을 주목적을 하는 모임으로 방향성을 전환하였습니다. 주로 인문?사회과학서적을 주로 읽으며 서로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러한 편한 모임입니다.

3. 모임 횟수 : 학기 중에는 공강시간을 맞춰서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는 것으로 하였고, 방학동안 역시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학기중에는 모임에 강제성을 두어서 처음에 시작을 한 사람들과 함께는 절대 빠지지 않고 그 멤버 그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방학동안에는 다들 바쁜 관계로 시간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4. 모임의 성원 : 학기중에는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책모임을 꾸렸고, 진행은 6명씩 두팀으로 나눠서 모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명의 인원보다 6명의 인원이 서로에 대한 발언권이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두 팀간의 교류는 한달에 두번 정도 야외모임을 가는 것으로 하여 교류를 하였습니다.

5. 모임의 성격 : 실제로 공학인들이 책을 안읽는 것을 감안하여 편안하게, 그러나 조금은 강제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모임입니다.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인문?사회과학 서적으로 누구나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베스트셀러나 좋은 책이라고 불리는 책들을 선정했습니다. 책 한권에 보통 1~2주에 걸쳐서 읽었고, 책을 읽는 모임이기는 하지만 서로간에 느끼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공간, 서로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책모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학기의 텀으로 운영되다보니 텀마다 독립되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모임의 장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서로간의 자발성에 기인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모임을 하면서 좋았던 점들 : 실제로 책모임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좋은 실천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일례로 자기가 자기책을 사는게 아니라 서로가 마니또 개념으로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받고 또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어떠한 책을 권해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책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친목도 도모되고, 여러모로 좋은 생각들로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 모임을 하면서 고쳐야될 점들 : 역시 자발적 모임이라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게 다양한 학번별로 모임을 하다보니, 저학번들이 고학번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발제를 하는 사람은 책을 선정할 때 자신이 읽은 책을 위주로 책을 선정하다보니 발제자에게는 모임을 하는데 있어서 발전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구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읽는 것을 목적으로 모여야 훨씬 정체성이 강하게 묶어나갈 수 있을꺼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1학기밖에 활동을 하지 않아서 평가할 것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